

# 방탄소년단(BTS) 노래에 나타난 월드뮤직의 양상: 템보우와 클라베 리듬을 중심으로

이해준, 한경훈\*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 Aspects of World Music in BTS Songs: Focusing on Dembow and Clave Rhythm

Hae-Jun Lee, Kyung-Hoon Han\*  
Department of Postmodern Music, Kyung He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케이팝 가수 방탄소년단 노래를 분석하여 월드뮤직의 양상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경제뿐 아니라 문화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교류와 통합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는 장르의 발전과 융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서구권의 음악뿐만 아니라 국내의 케이팝 음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중화 양상을 띠고 있는 월드뮤직의 요소 중 템보우 리듬과 클라베 리듬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여보고 방탄소년단의 노래에 접목된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대표곡 두 곡을 선정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리듬 이론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두 곡 모두 3+3+2의 독특한 구조를 가진 템보우 리듬을 중심으로 매 박자 킥 리듬을 연주하는 하우스 뮤직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악기를 활용한 변형된 형태의 트레실로 리듬과 다양한 유형의 클라베 리듬이 현대화된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인 "피 땀 눈물", "Idol"은 해당 음반의 타이틀곡인데, 방탄소년단 같은 세계적인 케이팝 가수가 정규앨범의 타이틀곡에 월드뮤직의 요소를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K-pop이 탈중심적이고 다방향적인 월드뮤직의 흐름을 반영하는 양상을 띠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케이팝의 세계화와 월드뮤직의 요소간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나아가 음악적 분석을 통한 다양한 기법적 접근이 심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songs of the K-pop band BTS and focuses on aspects of world music within them.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ternational exchanges,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began to occur not only in the economy but also in terms of culture, which led to the development and convergence of the K-Pop genre. We can see this phenomenon occurring not only in the Western music market but also in domestic K-pop. In this paper, we find characteristics of Caribbean music elements called dembow and clave that are used in BTS songs. The analysis confirms that the characteristics common to two songs are dembow rhythm, with a unique structure of 3+3+2,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use music playing the kick rhythm in every beat. The two songs analyzed ("Blood Sweat Tears" and "Idol") are the title songs of the album, and world-class K-pop singers such as BTS are borrowing elements of world music for the title tracks of their albums, which is the result of their efforts to follow the cultural trend of decentralized and multi-directional world music. The reason K-pop should borrow a variety of elements from world music is that K-pop is receiving global attention and is no longer only heard in Korea, so research and development of K-pop with various elements of world music, as well as dembow and clave, is needed.

**Keywords** : World Music, K-pop, Moombahton, Clave, Dembow, BTS

\*Corresponding Author : Kyung-Hoon Han(Kyung Hee Univ.)

email: han@khu.ac.kr

Received December 1, 2022

Revised January 2, 2023

Accepted February 3, 2023

Published February 28, 2023

## 1. 서론

최근 월드뮤직(World Music)의 흐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서구권을 제외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지리적인 확장으로 영미 팝의 어법과는 다른 음악을 발굴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현지의 음악, 음악문화를 팝, 록, 힙합, 테크노 등 보다 현대적인 음악들과 혼합해서 월드뮤직의 새로운 트렌드로 포괄시키는 것이다.

이는 진품성(Authenticity)인가 혼종성(Hybridity)인가 하는 논쟁을 낳고 있다. 월드뮤직과 관련된 제도와 실천이 세상에 다양한 음악, 음악적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 점에서 월드뮤직은 탈 중심적이고 다 방향적인 문화적 흐름중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1].

케이팝(K-pop)의 인기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 2010년대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기점으로 유럽과 남미 지역에 이르기 까지 확대 되었고 2020년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억 회를 달성은 물론, 24시간 내 최다 조회 수를 기록하고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2주 연속 1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가수로서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한국 대중음악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월드뮤직 리듬 요소들이 세계적 팬덤을 보유한 방탄소년단 음악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케이팝과 월드뮤직에 관한 논문으로 이윤상, 정재윤의 「K-pop의 라틴 리듬 차용 분석 연구」, 박범근, 조태선의 「케이팝과 월드뮤직의 융합에 관한 연구」가 있고, 월드뮤직의 리듬에 관해 연구된 논문으로는 이봉재의 「아프로쿠바음악의 기본개념 클라베의 적용방식 연구」, 「아프로쿠바 음악의 문화적의미와 악곡 구성 원리에 대한 연구」, 임승준의 「K-pop음악에서 활용된 Moombahton요소의 분석」등이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템보우(Dembow) 리듬이 케이팝에 적용된 사례는 발견할 수 있지만 클라베(Clave) 리듬을 케이팝 음악에 적용시킨 연구는 흔치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드뮤직의 요소 중 템보우 리듬과 클라베 리듬을 중심으로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분석하여 월드뮤직의 양상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방탄소년단의 음악 중 멜론차트의 연간순위 10위권에 진입하고 일간차트에 300일 이상 진입된 곡들로 한정하였다. 이는 월드뮤직의 특징이

대중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최대한 인지도 있는 곡들로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차트 내 진입 곡들 중 월드뮤직의 특징이 관찰되는 곡들을 분류하였다. 셋째, 월드뮤직 리듬 이론 중 본 연구의 중점 분석 도구인 템보우 리듬과 클라베 리듬의 사용이 유추되는 곡들로 좁혀 최종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방탄소년단의 차트 내 곡들 중 월드뮤직의 요소가 관찰되는 곡으로는 〈Map of the soul:7〉 앨범에 수록된 “Filter”, “Outro:ego”, 〈Wings〉 앨범에 수록된 “피땀눈물”, 〈Love yourself 結 Answer〉 앨범에 수록된 “Idol” 등이 있었으며,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대상 곡으로는 “피땀눈물”과 “Idol” 두 곡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 2. 이론적 배경

### 2.1 월드뮤직의 현대적 의미

월드뮤직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비서구의 고유한 전통 음악이나 민속음악을 지칭하기도 하고 마케팅적으로 비서구를 제외한 전통적인 민속음악이나 국가 고유의 토착 음악적 요소를 타문화와 결합한 음악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경제뿐 아니라 문화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수준의 교류와 통합,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문화 세계화’라는 용어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 문화의 교류 폭과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무엇이 시대적 동향인지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2].

최근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서구와 비서구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다. 한 예로, 한국의 대형기획사만 하더라도 서구권에 있는 작곡가 및 프로듀서들에게 K-pop 작곡을 의뢰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월드뮤직이 비서구의 음악이라는 인식에서 세계적인 음악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월드뮤직은 세계 각국의 종족 음악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악의 현대화에 맞춰 변형을 시도한, 보편성을 지닌 대중음악의 한 부류라 정의할 수 있다.

### 2.2 월드뮤직의 주유리듬

#### 2.2.1 템보우 리듬

템보우의 리듬은 샤바 랭크스(Shabba Ranks)의 “Dem

Bow”가 발표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템보우 리듬과 레게톤(Reggaeton)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계기는 2017년 1월에 발매된 루이스 폰시(Luis Fonsi)의 노래, “Despacito(Feat-Daddy Yankee)”의 흥행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Despacito”는 UK차트 4위를 오르며, YouTube 조회수 70억 회가 넘는 흥행을 기록하였다.

템보우 리듬이 주요 리듬으로 사용되는 장르는 대표적으로 레게톤과 뭌바톤(Moombahton)이 있다. 레게톤은 힙합의 환경에서 태어나 자메이카 지역의 댄스 홀(Dance Hall)장르와,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트로 피컬 리듬 및 음색을 가미한 것이고, 80년대에 스페인어로 불리우던 파나마의 레게 음악이 상업화되어 대중에 알려지게 되면서 현대화가 가미된 레게톤 형태로 발전되게 되었다.

뭌바톤은 레게톤과 일렉트로 하우스(Electro House)가 합쳐진 장르이다. 2009년 데이브 나다(Dave Nada)가 레게톤 음악 위에 아프로잭(Afrojack)의 리믹스 음악 “Moombah!”를 108 bpm으로 내려 튼 것이 뭌바톤의 시초가 되었다[3].

딜런 프랜시스(Dillon Francis), 디제이 스네이크(DJ Snake), 메이저 레이저(Major Lazer)등의 EDM 프로듀서들이 뭌바톤 장르의 노래를 꾸준하게 발표하여 인지도를 쌓았으며, 2015년에 발매된 디제이 스네이크와 메이저 레이저의 “Lean On”은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뭌바톤을 인기 장르로 이끌었는데 “Lean On”은 미국의 빌보드차트 핫100 4위, UK차트 2위를 기록하였고, YouTube 조회수는 30억이 넘는 흥행 기록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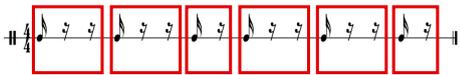


Fig. 1. 3+3+2 Dembow Rhythmic Structure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템보우 리듬의 특징은 음표가 3+3+2의 구조로 독특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1박자를 16분음표 4개로 나누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16분음표를 3개씩 묶어서 사용하는 그루핑(Grouping)이 특징으로, 일반적인 4/4박자에서의 한 마디 안의 리듬은 4+4+4+4의 4개의 숫자 구조에서 3+3+2+3+3+2의 6개의 숫자 구조로 변하는 독특한 구조가 되며, 강박의 위치가 싱크페이션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 특징을 만들어

낸다[4].

템보우 리듬의 또 다른 특징은 드럼이나 퍼커션의 실제 연주가 아닌 드럼머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리듬이라는 점과 리듬의 변형은 있지만 필인(Fill in)의 활용이 적고 주로 반복된 형태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템보우 리듬과 클라베 리듬의 3음절을 연주하는 쓰리사이드(Three-side)가 구조적으로 3+3+2의 패턴을 갖는 동일한 구조이지만, 드럼머신으로 표현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는 템보우 리듬, 멜로디로 쓰이는 악기에 사용될 때는 트레실로(Tresillo) 리듬이라 구분하고 있다. 두 리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템보우는 16분음표만 사용하며, 트레실로는 8분 음표, 16분 음표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4].

### 2.2.2 클라베 리듬

클라베는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음악에서 유래되었는데, 아프로 쿠바의 종교 음악과 세속음악의 근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프로 쿠바 음악에서 화성과 선율에 대한 사고뿐 아니라, 즉흥연주와 리듬 패턴의 변화도 클라베에 맞추어 진다.

아프로 쿠바의 음악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속적인 합주곡이 발전되어 새롭게 창조되고, 클라베는 이 전통을 통해 선율을 결정하고, 다른 파트들을 결정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클라베는 아프로 쿠바 음악의 기본이 되고 아프리카계 음악 스타일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된다[5].

아프로 쿠바 음악에서 클라베의 리듬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손 클라베(Son Clave)와 뭌바 클라베(Rumba Clave)이다. 클라베의 연주는 둘 다 3음절(Three stroke)로 된 한 마디와 2음절로 된 한 마디가 연결된 2마디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3음절을 치는 마디를 쓰리 사이드, 2음절을 치는 마디를 투 사이드(Two-side)라고 한다. 3-2의 순서로 된 클라베를 포워드(Forward), 2-3의 순서로 된 클라베를 리버스(Reverse) 클라베라고 한다.

클라베는 쓰리 사이드에서 첫박이 2번 강조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투 사이드에서 정박에 연주하게 되면서 긴장을 이완시키는 느낌을 주게 된다. 이 두 마디 패턴은 긴장과 이완의 대립 구도를 갖게 된다. 이때 쓰리 사이드를 연주하는 마디는 강을 뜻하며 ‘트레실로’라 부르고 투 사이드를 연주하는 마디는 약을 의미하며 ‘데빌(debil)’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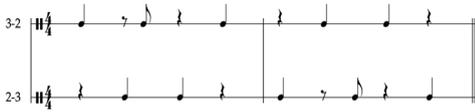


Fig. 2. Son Cl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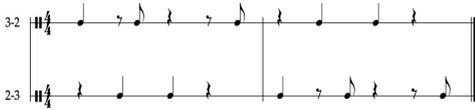


Fig. 3. Rumba Clave

Fig. 2와 Fig.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손 클라베와 롬바 클라베의 차이점은 쓰리 사이드 마지막 음표의 위치에 있다. 손 클라베에서는 마지막 음표가 4번째 정박에 위치에 있고, 롬바 클라베는 쓰리 사이드의 마지막 음표가 첫박에 있다[6].

### 3. 방탄소년단 음악에 나타난 월드뮤직 리듬 분석

#### 3.1 곡분석

##### 3.1.1 <Wings>앨범에 수록된 “피 땀 눈물”

“피 땀 눈물”은 템보우 리듬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몸바톤 장르의 곡으로서 방탄소년단이 2016년에 발매한 두 번째 정규음반 <Wings>의 타이틀곡이다. “피 땀 눈물”은 멜론차트 기준으로 최고 6위를 기록하고 일간차트에 302일 연속 진입해 대중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은 곡이다.



Fig. 4. Guitar Rhythm, Pluck Sound

Fig. 4는 [A] 파트 1, 3 마디에 기타와 플럭사운드가 동일하게 3+3+2의 구조를 가져가고 있지만 1박과 2박은 기타리듬이, 3박과 4박은 플럭사운드가 번갈아가면서 트레실로 리듬을 활용하고 있다.



Fig. 5. [A] Part Kick, Snare Rhythm of 5-12 Bar

[A] 파트의 5-12마디를 살펴보면 몸바톤에서 사용되던 템보우 리듬을 킥과 스네어에서 Fig. 5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킥의 리듬이 모든 박에 연주되지 않고 1박, 3박에만 연주함으로써 전형적인 템보우 리듬과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3+3+2의 구조를 띠게 된다.



Fig. 6. Bell Rhythm



Fig. 7. Pluck Sound

[B] 파트에 나오는 벨 선율의 경우, Fig. 6과 같이 쉼표를 간헐적으로 포함한 3+3+2 응용 구조를 연주하고 있고, 5-8마디에 나오는 플럭 사운드의 경우, Fig. 7과 같이 악보상으로는 리듬의 변화가 없어 보여도 3+3+2의 구조로 악센트를 주고 있어서 트레실로 리듬을 구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8. [C] Part Drum Rhythm

매 박자 킥을 연주하는 ‘Four on the Floor’는 하우스 뮤직(House Music)에서 나타나는 리듬이다. Fig. 8에서 보는 것 같이 킥 리듬은 매 박자 연주되고 있지만 스네어와 같이 연주되어질 때 3+3+2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템보우 리듬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 밖에, “피 땀 눈물”의 템보우 리듬은 드럼 머신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킥 리듬이 2박마다 연주되다가 매 박자 연주하는 패턴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기타와 플럭 사운드에 사용된 트레실로 리듬은 2박자씩 서로 주고받거나, 3+3+2의 첫 3구조를 쉼표로 변형시키는 등, 기존의 트레실로 리듬에 악센트 변화를 줌으로써 트레실로 리듬을 보다 화려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1.2 <Love yourself 結 Answer> 앨범에 수록된 “Idol”

“Idol”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아프리카 전통음악의 리듬 중 클라베 리듬과 템보우 리듬의 특징이 나타나는 하우스뮤직 장르의 곡으로서 정규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의 타이틀곡이다. “Idol”은 멜론차트 기준으로 최고 2위를 기록하고 474일 연속 일간차트에 진입하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중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은 곡이다.



Fig. 9. Intro lead sound

Fig. 9는 “Idol”의 [Intro] 파트에 나오는 리드 사운드의 리듬 패턴을 살펴보면 연주되는 대부분의 리듬이 트레실로 리듬에서 살피지는 3+3+2 구조를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마디의 3, 4박은 3+3+2의 구조에서 벗어난 리듬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리듬에서 트레실로 리듬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Intro] 파트의 리드 사운드는 트레실로 리듬을 구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10. [A] Part Drum



Fig. 11. [A'] Part Drum

[A] 파트와 [A'] 파트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스네어의 위치이다.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파트의 경우 스네어의 리듬이 3+3+2의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 템보우 리듬은 16음표만을 사용하는 리듬으로 정의 하고 있는데, [A] 파트의 스네어의 최소 단위는 8분 음표를 사용하고 있기에 클라베 리듬의 트레실로 리듬을 구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12. [A'] Part Snare

Fig. 12는 [A'] 파트의 드럼 리듬에서 스네어 리듬만 약보화 한 것이다. 첫 번째 마디를 반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1박과 2박은 데빌의 투사이드, 3박과 4박은 트레실로의 쓰리사이드인 전형적인 2-3의 리버스 클라베 패턴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마디는 투 사이드의 리듬이 간헐적으로 변형되었지만 구조적 특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베 리듬이 응용된 2-3의 리버스 클라베의 리듬을 구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13. Piano and Snare Drum Rhythm

[B] 파트는 Fig.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아노에서 낮은 음자리를 연주하는 음의 리듬과 스네어의 리듬이, 한 마디 안에서 3+3+2의 리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 2박은 피아노가, 3, 4박은 스네어의 리듬이 변갈아 가면서 트레실로 리듬을 연주하고 있다.



Fig. 14. [C] Part Drum

[C] 파트에서는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 박자마다 킥이 연주되는 하우스 뮤직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1, 2박에서는 6+2의 구조가, 3박과 4박에서는 3+3+2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6’을 둘로 나누면, 두 번의 ‘3’이 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6+2의 리듬 구성은 3+3+2에서 변형된 템보우 리듬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Fig. 15. [C'] Part Drum

[C'] 파트의 경우, [C] 파트와 비교하여 달라진 것은 Fig. 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4박에 스네어 리듬이 추가된 부분이다. 킥과 스네어가 동시에 3+3+2의 구조를 연주하면서 템보우 리듬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살펴진다.

그 밖에, “Idol” 음악에서는 스네어에 사용된 트레실로 리듬이 2-3의 패턴을 가진 리버스 클라베 패턴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피아노와 스네어에 사용된 트레실로 리듬은 2박자씩 주고 받으며 3+3+2의 구조를 나타내어 트레실로 리듬을 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dol”에서 사용된 템보우 리듬은 3+3+2 구조가 변형된, 6+2+3+3+2의 구조로 나타났으며, 스네어를 추가적으로 연주하면서 키크와 스네어를 동시에 연주함으로써 템보우 리듬의 3+3+2 구조를 부각시키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3.1.3 방탄소년단 노래에서 나타난 월드뮤직의 리듬적 요소가 가지는 의의

최근 케이팝 음악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월드뮤직의 요소들을 차용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 예시로는 2022년에 개최된 카타르 월드컵(Qatar World Cup) 개막식에서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부른 공식 주제가 “Dreamers”는 템보우 리듬이 주를 이루는 곡이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 월드컵에서 템보우 리듬을 차용한 노래가 공식 주제가 라는 점은 템보우 리듬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리듬이 아니라 대중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리듬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월드뮤직의 요소들을 차용한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방탄소년단의 노래들과 다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과 “Idol”은 해당 앨범의 타이틀곡 이며, 이 두 장의 앨범은 정규앨범이다. 그에 비해, 다른 가수들의 노래 중 월드뮤직의 요소들이 나타난 노래들은 타이틀곡이 아니거나 타이틀곡으로 발매가 되어도 정규앨범이 아닌 EP앨범, 싱글앨범 등으로 발매가 된 곡들이 대부분이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중 월드뮤직의 요소가 차용된 노래들은 싱글앨범으로 발매되거나, EP앨범으로 발매가 되고 Shabba Ranks의 “Dembow”는 정규앨범을 구성하는 곡으로 타이틀곡이 아닌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1. A Song with the Elements of World Music

Singer	The Song name	Title Song	Studio/Single/EP
BTS	Blood Sweat&tears	Blood Sweat&tears	Studio Album

BTS	Idol	Idol	Studio Album
Black Pink	Boombayah	Boombayah	Single
Black Pink	As if its your last	As if its your last	Single
Lesserafim	Antifragile	Antifragile	EP
Mamamoo	ILLELLA	ILLELLA	EP
Shabba Ranks	Dembow	Just Reality	Studio Album
Luis Fonsi	Despacito	Despacito	Single
Dillon Francis	Real Love	Real Love	Single

두 번째, 방탄소년단의 노래에서 차용한 월드뮤직의 요소는 한 곡에서만 나타나는 일회성이 아니며, 한 가지의 요소만 차용해서 비슷한 장르의 곡들을 만드는 것과는 달리 월드뮤직의 요소들을 차용하여 다양한 장르의 곡을 생산해내고 있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같은 템보우 리듬과 클라베 리듬을 사용하지만 하우스 뮤직(House Music), 라틴 팝(Latin Pop), 레트로 펑크 힙합(Retro Funk Hiphop)등 다양한 장르의 곡에서 월드뮤직의 리듬을 차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Airplane Pt.2”의 곡 같은 경우 트레실로 리듬을 사용한 라틴 팝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탱고(Tango)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곡임을 알 수 있다.

Table 2. The Elements of World Music in BTS Songs

Year of release	The Song name	World Music Rhythm / The genre of Music
2015	Boys with Fun	Clave /Retro Funk Hiphop
2016	Blood Sweat&tears	Dembow, Tresillo /Moombahton
2018	Idol	Dembow,Tresillo /House Music
2018	Airplane Pt.2	Tresillo /Latin Pop
2018	Go Go	Tresillo /Latin Pop
2020	Filter	Tresillo /Latin Pop
2020	Outro : ego	Clave /Energetic Pop
2022	Dreameres	Dembow /House Music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륙을 넘어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요소들을 차용하여 탈 중심적이고 다 방향적

인 월드뮤직의 문화적 흐름을 따라가고자 하는 노력이 방탄소년단의 노래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해외에서 발매된 루이스 폰시의 “Despacito”, 딜런프랜시스 “Real Love”, 국내에서 발매된 마마무의 “ILLELLA”, 르세라핌의 “ANTIFRAGILE”,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등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템보우 리듬, 클라베 리듬을 사용한 곡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위의 언급한 곡에서 사용한 템보우 리듬과 클라베 리듬에서 3+3+2의 구조는 리듬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마마무의 “ILLELLA”는 레게톤의 장르로 3+3+2의 구조를 가진 템보우 리듬이 연주되는데, 필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리듬이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어 연주된다. 이를 리듬적인 요소로 접근했을 때, 비교적 단순한 리듬구조를 가진 곡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앞서 분석한 “피 땀 눈물”, “Idol”에서 사용된 템보우 리듬, 클라베 리듬은 3+3+2 구조에서 첫 3의 구조를 심표로 변형시키거나, 6+2+3+3+2 등의 구조가 변형된 리듬을 연주하고 있고, 2가지의 악기가 2박자씩 트레실로 리듬을 주고받거나 트레실로 리듬에 악센트를 주면서 트레실로 리듬을 보다 화려하게 부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드뮤직의 요소들을 차용한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다른 가수들의 노래와의 차이점을 종합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피 땀 눈물”과 “Idol”은 해당 음반의 타이틀곡으로서 대표성, 상징성이 있는 곡이다. 정규앨범의 타이틀곡인 두 곡의 성공으로 인해 월드뮤직의 요소를 차용한 곡이 국내외에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 두 번째 템보우 리듬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레게톤, 뭉바톤 등 특정 장르 뿐만 아니라 라틴 팝, 레트로 펑크 힙합 등 다양한 장르에서 월드뮤직의 요소를 차용해서 곡을 생산하고 있다. 세 번째, 변형된 리듬 구조, 악센트 사용, 악기 간의 리듬을 주고받는 등 일정한 리듬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곡들과 차이점을 두었다.

####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템보우 리듬과 클라베 리듬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여보고, 월드뮤직의 요소가 방탄소년단 노래에 접목된 사례를 분석하여 그 양상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곡인 “피 땀 눈물”, “Idol”에서 두드러진 방

탄소년단 음악의 월드뮤직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전반에 사용된 리듬 파트의 구조가 3+3+2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템보우 리듬의 특징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악기 사용에서도 두드러지는데, 기타와 플럭 사운드, 피아노와 스네어 등 두 가지의 악기가 트레실로 리듬을 주고받거나 기존의 트레실로 리듬에 악센트 변화를 줌으로써 템보우 리듬과 트레실로 리듬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래에 사용된 리듬이 3+3+2 구조를 변형해가면서 그 안에서 템보우 리듬과 클라베 리듬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3+3+2의 첫 3구조를 심표로 변형시키거나 3+3+2의 구조를 6+2로 변형시키는 등, 리듬의 구조를 변형하여 지루함을 피하고 발전된 형태로 편곡하고 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3+3+2 구조를 계속해서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월드뮤직의 리듬 요소를 현대화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대중적인 댄스 장르의 리듬 요소와 혼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템보우 리듬의 3+3+2 구조 중 첫 ‘3’을 대부분 킷이 연주하게 되는데, 매 박마다 전자드럼 소스의 킷을 ‘Four on the Floor’ 형태로 연주하면서 하우스 뮤직의 느낌을 주고, 나머지의 구조는 스네어로 템보우 리듬의 특징을 연주함으로써, 두 개의 장르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양상을 띠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대중음악은 한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는 혼종성을 보이고 있다. 분석의 대상인 “피 땀 눈물”, “Idol” 두 곡 모두 해당 음반의 타이틀곡이다.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케이팝 가수 음반의 타이틀곡에 월드뮤직의 요소를 차용하고 있다는 점은, 케이팝이 점차 탈 중심적이고 다방향적인 월드뮤직의 성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두 곡 모두 월드뮤직의 요소가 적용된 곡임에도 300일이 넘도록 일간차트 내에 머무르는 등 국내외적으로 큰 흥행을 거두고 있고,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르세라핌, 블랙핑크, 마마무, 뉴진스 같은 케이팝 가수들도 월드뮤직의 요소들을 꾸준히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케이팝 음악이 월드뮤직 요소들을 차용하는 다양한 시도를 보이는 이유는, 세계화된 케이팝의 위상으로 인해 음악 수요의 대상이 국경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케이팝의 세계화와 월드뮤직 요소 간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보다 실질적인 음악

분석 연구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의 음악에 나타난 월드뮤직 양상을 고찰한 본 연구가 향후 다양한 음악 요소들의 융합 연구에 유의미한 참고 자료로 쓰여지길 바라며, 나아가 세계 속 한류 연구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 References

- [1] C. N. Kim, *Understanding Popular Music*, 376p, Hanul Academy, 2018.
- [2] K. T. Lee, *The Kpop age*, 232p, Hanul Academy, 2016.
- [3] Julianne Escobedo Shepherd, Dave Nada Creator of Moombahton: Interview, *The Fader*, 2010 March 5, Available From: <http://www.thefader.com:80/2010/03/05/dave-nada-creator-of-moombahton-interview-mp3s/comment-page-1/> (accessed Oct. 25, 2022)
- [4] Y. S. Lee & J. Y. Jeong, An Analytic Study on Latin Rhythm of K-POP,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3, no.6 pp.45-52, 2019. DOI: <https://doi.org/10.21184/ikeia.2019.8.13.6.45>
- [5] B. J. Lee, *A Study on the Cultural Meaning of Afro Cuban Music and the Principles of Composition of Music*, A Doctoral Dissertation, Dong a University, p.50, 2010.
- [6] B. J. Lee, World Music Research Room: A Study on the Basic concept of Cuba's basic concept of Cuba, *Music and Culture* Vol.17, pp.209-237, 2007.

한 경 훈(Kyung-Hoon Han)

[정회원]



- 2000년 2월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A. 실용음악 석사
- 2001년 2월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영화음악 고급대학원과정 졸업
- 2021년 2월 :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
- 2021년 1월 ~ 현재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음악감독

<관심분야>

미디어음악, 엔터테인먼트산업, 문화예술정책

이 해 준(Hae-Jun Lee)

[준회원]



- 2019년 2월 : 전주대학교 경배와 찬양학과 학사
- 2021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월드뮤직, 실용음악, k-pop